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 9월 모의평가

## 총평

상상국어평가연구소

# 2026학년도 9월 모의 평가
# 국어 총평

- 2025. 9.3. 상상국어평가연구소

##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1. 독서는 기술 지문 난도↑, 2. 문학은 <보기> 의존도를 낮춰 분석력↑, 3. 선택 과목은 문항 형식 변화로 체감 난도↑, 4. 언어의 난도↑”**

올해 9월 모의 평가는 지난 6모뿐만 아니라 25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는 29,091자로, 24학년도 9모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독서는 예술 복합과 사회 지문은 평이한 대신, 기술 지문이 변별력을 확보했다. 문학은 <보기>의 정보를 개념적 도구 정도 수준으로 제시하여 작품에 대한 분석력에 기반하여 문항을 풀도록 유도했다. 이번 9모에서는 선택 과목에서 형식상의 변화가 많이 시도되었다. 도표를 비롯한 <학습 활동>의 구성을 통해 체감 난도를 높였다. 특히 언어는 관련 배경지식이 탄탄하지 않으면 정오 판단은 물론이고 풀이 소요 시간도 상당히 걸릴 정도로 난도가 높았다. 1등급 컷은 화작 91~92, 언매 87~88점으로 예상된다.

## 02 영역별 분석

■ 독서

독서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시의성 있는 제재를 선택한 것이 눈에 띈다. 이를 독서 활동과 연결하여 AI를 활용한 정보 탐색의 특징과 AI가 생성한 자료 읽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문항의 경우 단순 정보 확인과 부분적 추론형 선지, 독서 일지를 활용한 지문 정보의 응용이라는 일반적 형식을 유지했다. ‘SF 문화 이론’(수특, p.49)을 연계한 예술 복합은 (가)에서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이해한 두 사상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에서 SF 영화의 특징과 의의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나)의 경우 ‘노붐’, ‘인지적 낯섬’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르코 수빈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여 연계도가 높았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문항은 대체로 평이했지만, 8번 문항은 영화에서의 이미지와 이념의 반영 양상에 관해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까다로웠다. 9번 다의어 문항이 복합형(ⓐ,ⓑ)으로 구성되어 기존 어휘 문항보다 난도가 높았다는 점도 특이했다. ‘심의 민주주의와 공론 조사’(수특, p.142)를 연계한 사회는 공공 저널리즘의 등장 배경과 상반된 두 입장을 소개한 뒤 그 의의와 한계, 보완에 대해 설명했다. 연계 교재에 제시된 소재를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는 연계 방식을 보여 주었으나, 어려운 개념어가 등장하지 않고 사상가들의 의견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지문 난도는 평이했고 문항도 쉬웠다. 12번 문항은 네 학자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으나, 지문과 <보기> 정보를 단순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축음기의 소리 재생 원리’를 연계한 기술(수특, p.213)은 소리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저장 방식 원리, 청각 특성을 활용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원리를 다뤘다. 연계 정도도 미미했고, 정보량이 많은 편이며 정보 간의 유기적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지문이라 할 수 있다. 16번 문항은 경쟁 선지와 정답 선지가 일정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어 난도가 다소 높았다. 17번 문항은 핵심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으로 정답 선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도출되지만, 도표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다.

■ 문학

EBS 연계 작품으로는 「이화전」, 「경사」, 「화전가」, 「공명을 헤아리니~」가, 비연계 작품으로는 「달빛 체질」, 「용연사기」, 「석문가」, 「두 출발」이 출제되어 50%의 작품 연계율을 보였다. 특히 고전 소설의 경우 출제 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 70% 이상 겹친다. 갈래 복합은 지난 6모와 마찬가지로 5문항이 출제되었지만, 6모와 달리 세 작품을 결합하였고 현대 소설과 마찬가지로 EBS에 실린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출제한 점이 특이했다. 대신 고전 시가에서는 시조를 포함하여 세 작품을 결합하여 4문항을 출제했다. 지문과 문항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셈이다. 대체로 작품의 시상과 서사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24번 문항은 시어의 의미와 이미지 간의 관계에 대해 묻되, 긍정/부정의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과 화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웠다. 30번 문항도 작품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작가 연계인 현대 소설 지문은 네 세트 중 가장 어려웠다. 특히 33번 문항은 인물의 행동과 내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정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34번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정보와 선지에서 인용한 부분과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았다.

■ 화법과 작문

화법(35~37)은 연날리기의 역사와 놀이 방법을 제재로 한 발표로 친숙한 소재와 익숙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37번 <보기> 문항에서 학생의 틀린 반응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화작 융합(38~42)은 나눔 지도 제작을 주제로 한 세트로, 제안서라는 형식이 처음 등장했다. 정보량이 많고 단독 문항 수가 줄어든 대신 (가)와 (나)를 연결하여 푸는 문항이 늘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특히 39, 40, 41번 문항은 기존 유형에 변화를 주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다. 작문(43~45)은 성격 유형 검사라는 시의성 있는 소재에서 출발해 범주화의 사고가 갖는 문제점을 다뤘다. 45번 문항도 '학습 활동'의 형식으로 지문 내용에 대해 비판하게 함으로써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문형(35~36)에서 비교적 낯선 '병렬 구성'의 특성과 문법적 적절성에 대해 다뤘다. 35번 문항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36번 문항은 풀이 과정이 복잡하여 난도를 확보했다. 단독형의 경우 37번 문항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담화 상황을 제시하여 평이했으나 38번 문항은 격 조사와 보조사의 구분을 하되, <보기>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③번과 ④번 선지가 각각 경쟁 선지, 정답 선지로서 상당히 어려웠다. 39번 문항도 단순한 의미의 변화를 묻기보다 중세와 현대 국어의 비교, 확대와 축소에 따른 의미의 함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매체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이를 바탕으로 만든 발표 자료, 학생들의 대화와 이를 토대로 구성한 게시판을 각각 다뤘고, 기출에서 자주 보아 왔던 유형이라 평이했다.

## 03 상상 모의고사와 9모

이번 9모는 평가원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문의 선정과 문항의 형식적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독서에서 복합 지문을 분야별로 안배하는 점, 문학에서 세트별 문항 수를 달리하고 작가 연계 지문을 배치하는 점, 선택 과목에서 <학습 활동>을 비롯해 문항 유형의 변화를 꾀하는 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형식이 바뀌어도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전에서는 쉽지 않다. 상상 모의고사 최신 출제 경향을 즉각 반영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이 반복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노력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